

# FINA 대표단, 광주찾아 수영대회 논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광주를 찾아 주경기장 설계문제와 '수영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장소 결정 등 대회 준비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4일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울 시 설위위원장, 피터홀 마케팅TV 부장 등으로 구성된 FINA 대표단이 15~18일 3박4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FINA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하반기 방문 당시 FINA 측이 요구했던 남부대 주경기장의 입원과

## 준비 점검차원 오늘부터 18일까지 광주 방문 주경기장 설계·오픈워터 장소 등 논의 예정

선수 통보 등 통신과 입시관람석에 대한 피난 계획 등 주요 경기장의 설계 보완사항들을 협의·조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방문 때 요구했던 대회 안전관리와 경기 참가선수 등에 대한 보험분야 예산의 증액 여부, 방송 관련 실무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FINA 대표단은 오는 2월 1일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FINA 다

이빙 컨퍼런스에서 조직위가 FINA 세계대회 개최도시 자격으로 대회 준비 상황과 경기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한 사전 조율 작업도 예정돼 있다. 시와 조직위는 FINA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FINA 대표단은 이번 일정동안 현장방문 없이 서류와 도면상으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러 조직위원장이 윤정현 시장은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광주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FINA 대표단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FINA 대표단이 주경기장의 집적화를 원하고 경영과 다이버, 수구 등이 열릴 주경기장에서 남부대가 다소 좁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에서 주경기장 변경이나 대폭적인 설계 보완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문 당시 남부대 수영장에서 다이빙만 하고 러시아 카잔대회처럼 경영은 날따란 축구장에서 진행되는 게 낫다는 FINA 측 제안에 따라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검토됐으나 현장 방문 결과 남부대가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또 지난해 두 차례 방문에서 확정하지 못한 오픈워터 개최 장소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오픈워터는 당초 장성호가 유력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위락시설도 열악해 여수로 잠정 변경된 상태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 간 진행되며 208개국 선수 입원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 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선수권대회는 7월 29일~8월 11일 14일 동안 열린다. 세계수영대회는 그동안 17차례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3번째 개최도시다.

서은홍 기자



윤정현 광주시장, 시청 공무원과 영화 1987 단체 관람  
윤정현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서구 메가박스 상무점에 서 최병상 광주전남 6·10행방 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청 87년생·87학번 공무원 등 30여명과 영화 '1987'을 관람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 AI 예방위해 노령 닭 도태사업 추진

## 질병 취약 100주령 이상 마리당 1천200원 지원

전남도는 AI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란을 오래까지 낳아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의 도태를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생산 주령 연장과, 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으로 산란노계의 도축이 지연된 가운데 지난 1일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산란계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가 절실해짐에 따른 것이다.

산란계는 보통 70주령까지 계란 생산을 하고 나면 질병 취약 등 경제성이 떨어져 도태를 시작한다.

전남도가 이번에 실시하는 도태사업은 100주령 이상 산란노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란노계 도태를 바라는 농가는 시군 및 양계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선 산란노계를 도태(랜더링) 처리해 비료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마리당 1천200원을 지원한다.

김정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 호남미래 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순천 예코그라드호텔에서 분청 간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과 '호남출신 명사들의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호남출신 명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호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호남출신 명사의 화교방문 특강 소외계층 학생과 명사와의 1:1결연을 통한 성장 발달 지원,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 모델 공동개발 등이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광주 동구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달여 간 운영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취약지에서 ▲계도·홍보·감시 등 산불예방활동 ▲산불진화·뒤틀림감시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산림보호,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사업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7명을 선발하는 이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서류접수는 17일까지이며 동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동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 서구, 폭설 대비 도로제설 총력

광주 서구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설(雪)동태'를 구성하여 폭설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간 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설(雪)동태 부서장들에게 담당동을 지정하여 현장상황을 즉시 수집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최대한 빠르게 제설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상특보 발생시 구청 직원들은 일과 시간에는 부서장 지정동을 지원하고 일과시간 전·후나 공휴일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동을 지원하게 된다.

## 최영호·민형배 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손잡아

1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구청장은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남구청과 광산구청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연에 나선다.

교차 강연의 첫 번째 주인공인 민형배 광산구청장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7일 오후 4시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연에 나선다.

최영호 남구구청장은 다음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에 올라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북구,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지원

광주 북구가 내달 27일까지 무등산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생태·문화·역사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2018년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무등산권 마을공동조직체와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문화단체로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내달 27일까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북구청 문화관광과(☎ 410-6624)로 방문 및 우편접수 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무등산권 자연마을의 특색 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주민소득 창출사업이며, 오는 3월 중순 자체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마을별 2,700만원 이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 광산구, 성실 납세자 혜택 일부서 전체로 확대

광주 광산구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면제한다. 무작위로 추첨한 일부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일은 있었지만, 모든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광주·전남에서 광산구가 최초다.

최근 3년간 1년에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을 지켜 전액 납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광산구 거주 주민이 '성실 납세자'의 정다. 올해 광산구 주민 5만2389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광산구청이나 동주민센터(관내)에서 무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 인 설 립 ■기 장 대 리  
■양도상속중여 ■건설면허신청  
■기 업 진 단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